

11월22일(월)/고전3:1~15 (2)

제목: 참 기독교 교육자이신 하나님

고린도교회는 바울과 아볼라와 게바를 우상시하는 각각의 그룹이 있었다(4절).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다 주인이 고용한 직원에 불과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로, 아볼로는 그 씨앗 위에 물주는 일로 고용되었다(6절). 한 사람은 선교사요 한 사람은 기독교 교사이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우상시했다는 고린도교회 이야기는 너무나 우습게 들린다. 그들은 유급 직원이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장차 그 수고한 댓가와 삿을 받을 자들이다(8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직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목사를 비롯한 각종 봉사자들이다. 이 직원들은 씨앗을 심고 물주는 자일 뿐, 그 식물의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여하신다(6~7절). 그러므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쫓아 피고 열매가 맺힌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비한 직원이 일을 맡았을 지라고 그 일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된다’ 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여기 어른들은, 여기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11월23일(화)/ 고전3:1~15 (3)

제목: 잘못된 건축가

바울은 항상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는 고린도에서 18개월, 에베소에서 3년. 테살로니가에서 약 한달 정도 머물렀다. 선교해야 할 곳은 많고 예수에 관한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10절). 그런데 그는 이 터 위에 누가 잘못된 집을 지을까 염려하였다(10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리를 곡해하여 어그러진 모습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잘못된 건축가들이다. 물론 ‘그 날’ 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런 잘못된 건축물들은 깨끗이 일소될 것이다(13절). 그리고 그날에는 이런 불충분한 건축자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한 책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15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충분한 건축물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물을 잔뜩 타서 기독교를 싱겁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 기분에 맞는 기독교, 자기가 경험한 기독교, 자기 인기를 위한 기독교를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전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고 계신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잘못에서 피할 수 있다.

11월24일(수)/고전3:16~17

제목: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유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곳, 회막(성막)이 최초의 성전이다. 이 회막은 운반하는 이동식이었다. 그 다음 성전은 고정된 한 장소에 국한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건립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여기서 제사장의 중재하여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셨다. 그리고 이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은 신약 시대에 인격중심의 성전 개념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그 인격에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곧 성전이다(16절). 즉 크리스찬이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은 건물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 인격을 만나시고, 그 인격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인격과 교제하신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며 예배하는 처소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는 사람들의 모임)라 부른다. 성전은 바로 ‘나’ 이다. 하나님은 ‘나’ 라는 성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17절).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의 인격, 즉 나의 지.정.의가 매일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거룩하여지는 성전정화 운동이 매일 매일 일어나야 한다.

11월25일(목)/고전3:18~23

제목: 지도자에 편협되지 마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18절) 여기서 지혜는 ‘영리함’ 을 가리킨다. 오히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리함’ 보다 ‘어리석은 것’ 을 요구한다(18절).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리하여 지도자들의 설교를 지성적으로만 판단했다. 그들은 설교의 내용이나 영성보다 보다 설교자의 수사법, 설득력, 단어의 품격, 지성미 같은 것을 따라 설교자를 판단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고 하며 당 짓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왜 지도자를 독점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느냐? 왜 그렇게 소심한가? 이들이 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했다(21절). 고린도교회는 어떤 한 특정 지도자에 붙들려 있으므로 다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모든 우주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22절). “이 모든 세계가 너희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두려라. 누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으니 너희도 세상의 영리함을 따라 살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받으리라”

11월26일(금)/고전4:1~5

제목: 지도자에 대한 평가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아볼로나 게바나 자기들을 당파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봐달라고 부탁하였다(1절).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킨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과 노예들을 감독하는 자이다. 그러나 청지기가 노예들을 감독한다 해도 그 집주인이 볼 때 그 청지기 역시 노예이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도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다(2절) 그런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독점하거나 우상시하였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어떤 지도자로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바울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내린 판단도 안 믿는다고 했다(3절). 이 부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4~5절).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그들을 독점하거나 우상시하는 것도 안되고 또한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다. 교회지도자는 하나님의 유별난 특권을 가진 노예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